

소제목 ▶▶▶ 누가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1)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에서 내 몸을 주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고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자랑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갈6:17)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이 말씀을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라고 번역합니다. 또 새번역성경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흔적은 '스티그마'인데 '찌른 자국, 찌른 흔적'을 말합니다. 이것을 낙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죄수나 전쟁 포로나 종이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어서 표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내 몸에 분명한 예수의 흔적, 찌른 자국, 상처, 낙인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전 4:9-13) "9.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고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한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3)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후11:23-27)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보면 바울의 온몸은 어떠했겠습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을 겁니다. 성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이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한 것만이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로도 맞고, 위험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몸에 짚어준 증거들입니다.

그 몸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에 넘긴 흔적들,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의 상처와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4)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한 번 보겠습니다. 뭐 봉사하다가 어디 좀 다치면 다시는 봉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가다가 어디를 좀 다치는 일이 생기면, "다시는 새벽 예배 안 갈 거야. 새벽 예배 가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지, 왜 다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생긴 흔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한 흔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5)

주를 위해서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며 사느라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능력의 삶,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이 누려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암송 및 묵상 말씀 📖 📖 " 갈라디아서 6 : 17 "

◆ 적용 ◆

1. 내게는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당하는 미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비방이나 미움이나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며 잘 감당해 나가게 하소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8:17

2. 내게는 주를 위해 사느라 생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산 것처럼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를 버리고 잃고 나를 죽음에 넘겨주고 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8:18** ♥